

Google Earth 위성자료를 통해서 본 신의주시의 공간적 특징: 무역, 산업,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정은이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eunlee7512@daum.net

I. 신의주시의 개관

1. 역사: 계획 · 상업 · 국제도시

신의주는 중국의 북중 접경도시 단둥시와 함께 일본에 의해 계획적으로 설계된 신(新) 도시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의주군에 속한 농촌부락에 불과했다. 일본이 침략기에 이곳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1923년에 도 소재지를 의주에서 신의주로 옮겨오면서 신의주시가 평안북도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는 신의주의 어원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1914년도에 신의주부는 의주부 광성면 신의주동을 중심으로 설치한 부로 원래 중심은 의주였으며, 신의주란 의주부 안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에서 새 ‘신(新)’ 자와 ‘의주(義州)’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따라서 신의주의 도시모양을 보면 단둥시와 같이 바둑판 모양이다(사진1 참조). 이는 신의주가 처음부터 매우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임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지도 1]신의주시 시가지와 [지도 2]남포시 시가지를 비교해보면 신의주시의 도로 모양이 매우 규칙적으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하나의 구역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도시로 건설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전 신의주시의 외국인 비중이 특히 높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35년 당시 신의주의 인구는 5만 4,310명으로 도인구총수의 4.6%를 차지했는데,¹⁾ 주민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조선인이 71.7%, 일본인이

*: 본 자료는 위성자료, 지도이외에도 필자의 북·중 접경지대 현지조사 및 심층인터뷰조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1) 이는 어디까지나 제방영역의 인구를 의미한다. 제방영역은 당시 9.6㎢였다.

[지도 1] 신의주 시가지



[지도 2] 남포시 시가지



자료: 『조선향토대백과』, 과학백과사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15.3%, 중국인을 기본으로 하는 외국인이 13%를 차지하여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이 일본인과 중국인의 비중이 다른 시군들에 비하여 많은 것은 신의주시가 당시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만주와 직접 잇닿아 있는 출입문호였다는 것과 관련된다.²⁾ 신의주시에는 현재 여전히 화교학교가 존재하며 화교총연합회 본부가 운영되고 있다.³⁾ 한편, 주민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19%, 상업은 41.7%, 농업은 1.3%, 기타가 38%를 차지하는 등 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무역과 상업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리적 위치 및 영역: 최대 북중 접경도시

무엇보다 신의주시는 북중 접경도시 중 가장 큰 도시로, 육상무역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 즉, 평안북도의 북서쪽 끝으로 압록강 하류 연안에 위치한 도소재지로, 북동쪽은 의주군, 동쪽과 동남쪽은 피현군, 남쪽은 룡천군과 맞닿아 있으며 서쪽은 압록강 골짜기를 경계로 중국 단둥시와 마주하고 있다.

2)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p.446.

3) 중국중앙민족대학의 '211프로젝트 북중 국경무역'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비공개 기초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북한 거주 화교는 8,000명이 넘고, 단둥 거주 북한화교는 7,000 여명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친척방문 등은 중북무역 및 교류의 주요 창구로 분석하고 있다(张秀萍 编, 2011, p.280)

[사진 1] 위성자료를 통해 본 신의주시와 단둥시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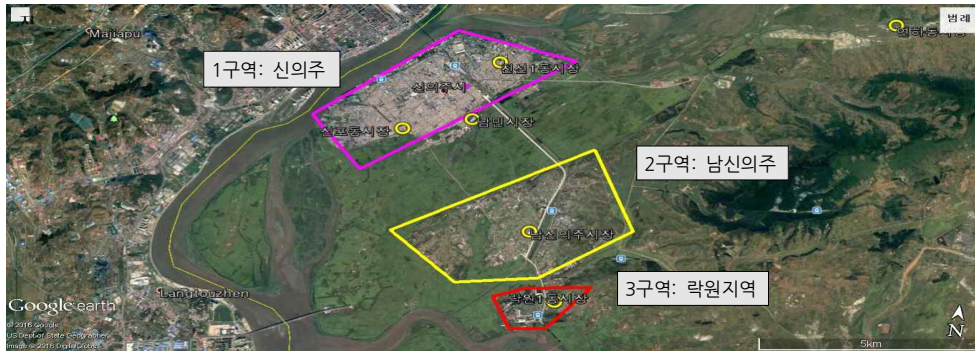
3. 행정구역: 3개의 구역과 중심지

신의주시의 행정구역은 2003년 49동 및 9리로 구성되어 있었다.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의주시는 도시가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3개의 구역으로 지형적·행정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개의 구역에서도 중심구역인 신의주시는 제방 안과 밖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위성지도에서 보면 신의주시가 구역 1, 2, 3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기본중심구역인 신의주시, 남신의주, 락원지역이다(사진 2 참조).

중심지는 1구역으로 표시한 신의주시가 된다. 이곳에 주민총수의 65%(도시주민의 76.9%)가 살고 있으며, 그 이외에 남신의주지역은 11.4%, 락원지역은 8.2%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1구역에 속하는 구역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신의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 시설, 당·정권기관, 행정기관에서 교육·문화기관과 방직·화학섬유공장 등 큰 공장·기업소에 이르는 모든 도시 시설들이 이곳에 입지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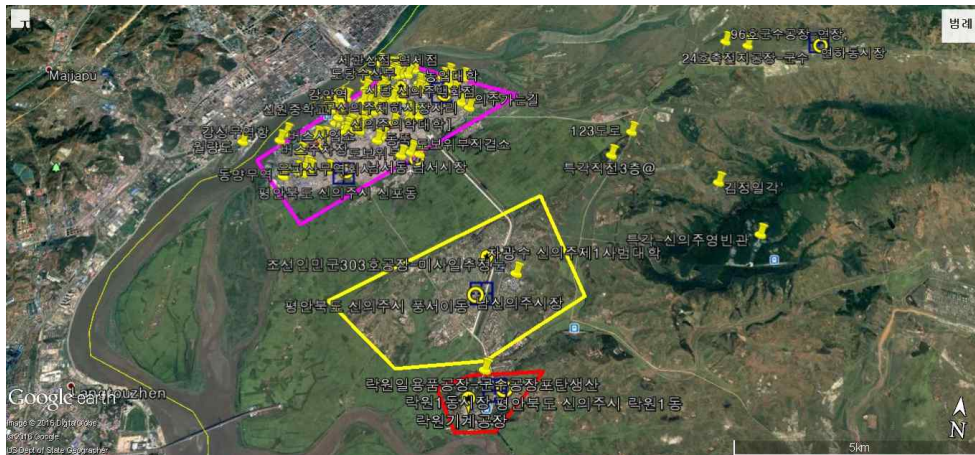
4) 『조선항토대백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사진 2]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신의주 시가지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사진 3]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 신의주 시가지와 중심지의 주변 인프라 설비들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신의주의 시장분포를 보아도 <표 1>과 같이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 분포하고 있는데, 기본구역에는 남민시장, 신포동시장, 친선1동시장 등 3개 시장이 존재했으며, 남신의주에는 1개, 락원구역에는 1개의 시장이 존재했다. 그 외 북동쪽 끝에 입지한 연하동에 시장 한 개가 더 존재하여 신의주시에는 총 여섯개의 시장이 존재하였다.⁵⁾

5) 지도상 북동쪽에 입지함.

〈표 1〉 신의주시 시장 위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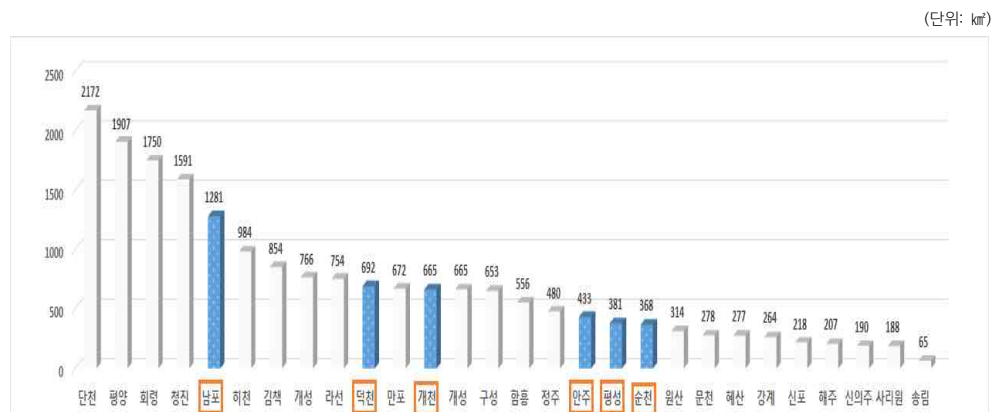
구분	구역·리·동	시장명	면적(m)
기본구역	남민동	남민시장	11,797
	신포동	신포동시장	2,711
	친선1동	친선1동시장	3,507
외곽	풍서2동시장	남신의주시장	6,553
	락원1동	락원1동시장	1,443
	연하동	연하동시장	865

자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및 Google Earth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4. 도시규모 비교: 면적과 인구, 인구밀도

신의주시의 동북(연하동)~서남(류초리) 간 길이는 20km이고, 북서(방직동)~남동(삼교리) 간의 길이는 13km이다. 면적은 약 190km²로서, 이는 도 전체면적의 1.42%에 불과하여 면적에서 보면 신의주시의 규모는 전국 28개의 시 중에서 26번째로 작은 도시이다(그림 1 참조). 반면에 신의주시는 인구가 약 35만으로 평양, 남포, 함흥, 청진 다음으로 많았다(그림 2 참조). 더욱이 신의주는 km²당 거주민이 1,891명으로, 인구밀도가 북한 전역에서도 두 번째로 높았다(그림 3 참조). 즉, 신의주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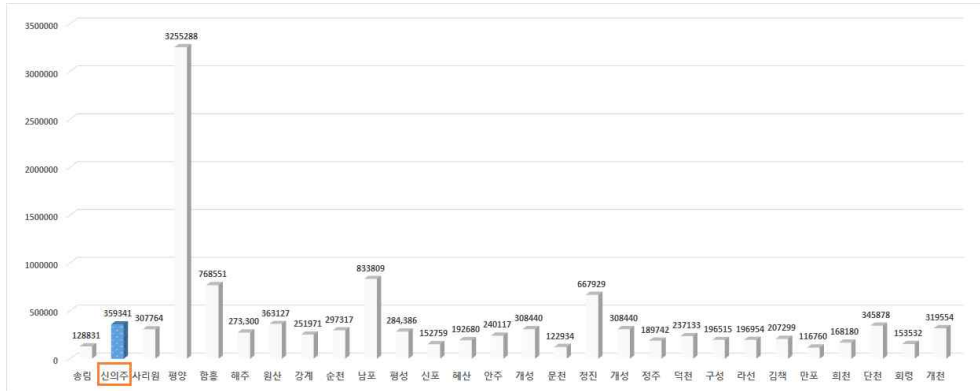
[그림 1] 북한 도시면적과 신의주



자료: Dormels, R. *et al.*,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저문당, p.25의 Table II -7(25)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그림 2] 북한 도시별 인구와 신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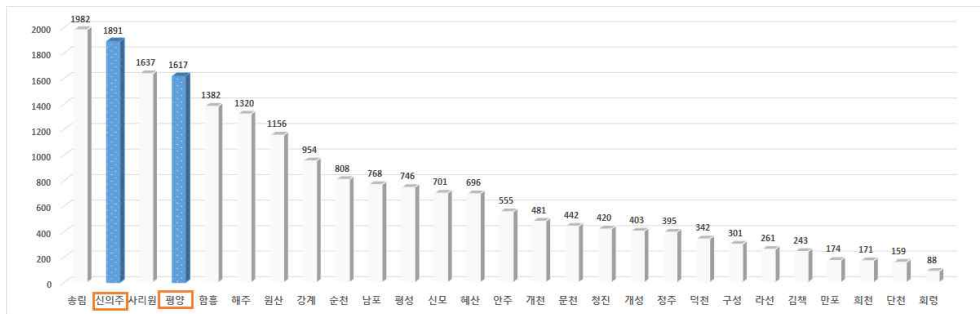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그림 3] 북한 도시별 인구밀도와 신의주

(단위: 명/km²)



자료: Dormels, R. et al.,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지문당, p.28의 Table II-8(26)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함.

5. 산업적 특징: 경공업 중심의 공장기업소

신의주는 1905년 경의선이 완공됨에 따라 점차 국제관문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부터 방대한 전력자원이 형성되어 여러 가지 산업이 등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화학·방직·제지기계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광복 후 신의주시는 기계·화학·경공업을 중심을 발달하였으며,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공업인 기계, 화학, 방직, 신발, 제약, 식료, 일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공업부문으로는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직 및 피복 공업, 일용품공업, 식료공업 등인데 이 공업부문들은 전국적 의의를 가진다.⁶⁾ 이 중 주요한 공장기업소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가정용품공장, 신의주구도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이 있다. 특히 종이를 생산하는 신의주시제지공장과 펄프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신의주를 대표하는 공장이다. 신의주시의 화장품공장은 그중에서 “봄향기”라는 ‘살결물’로 유명하며, 외화벌이사업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공업기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과 산업건축면적에서도 기계공업, 방직공업, 화학공업이 60% 이상 차지한다. 즉, 신의주시는 경공업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된다.

6. 인프라 특징: 수도 평양과 중국과의 연계

교통은 평의선(경의선)과 이 선에서 분리된 백마선, 덕현선이 통과하고 있다. 평의선에는 신의주청년역, 남신의주역, 포항역 등이 있다. 특히 신의주청년역은 평의선의 시단역이며 국제열차의 통과지점이다. 주요 도로는 평의선과 병행하여 평양~신의주 간 1급 도로와 신의주~우암 간, 신의주~피현 간 도로가 있다. 신의주에서 남신의주까지는 4km, 락원일동까지는 9.5km, 천마까지는 8.7km이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 연안의 신의주항을 통하여 신의주~하단~상단 간, 신의주~류초도~황급평~비단섬 간에 수상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II. 도시의 공간적 특징

1. 무역의 중심지

가. 세관설비(세관, 면담소, 물류창고, 부재사업소)

중국에서 압록강철교를 건너 신의주로 오면 바로 세관이 입지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눈에 띈다. 먼저 세관, 세관봉사소, 세관상점 등의 건물이 존재한다. 이곳은 3층 건물로 1층은 식당이며, 2, 3층은 주로 중국에서 무역파트너가 왔을 때 무역대표부가 나가

⁶⁾ 신의주시에는 1989년 25개의 중앙공업기업소와 62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었는데, 1980년도 신의주시 공업총생산액 가운데서 중앙공업은 88%, 지방공업은 12%를 각각 차지하였다 (『조선지리지전서: 평안북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9, p.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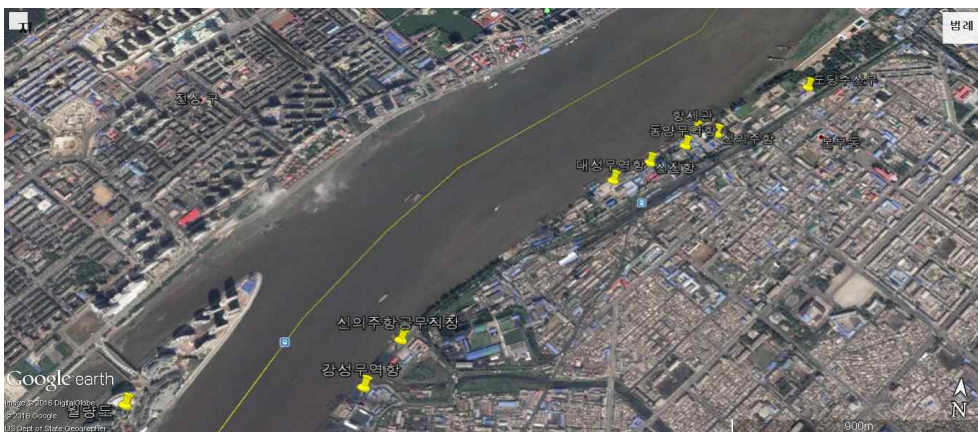
상담하기 위한 면담장소로 활용된다.

수출입물류를 보관하는 세관물류창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한다. 하나는 도 인민위원회가 관할하는 창고로 수출용과 수입용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가 각각 존재하며, 다른 하나는 강선무역회사가 관할하는 강선출하소가 있는데 이 건물도 수출용과 수입용으로 분류된다.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화물은 모두 이곳에 부리며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이외에 부재사업소가 있다. 이는 강둑을 보호하기 위한 자재인 부재를 생산하는 사업소인데, 이는 신의주시가 압록강과 접해 있어 쉽게 홍수에 노출되는 점과 연관되어있다.

나. 각종 무역항(내각, 군부소속)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압록강을 따라 각종 무역항들이 입지해 있다. 이는 내각에서 관할하는 세관 무역항뿐 아니라 신진항, 강봉항, 대성무역항, 동양무역항, 강성무역항 등 군부 소속 무역회사 소속의 무역항들이 입지해 있다(사진 4 참조). 이곳으로는 주로 인근 산지에서 들어온 정광이나 무연탄 등이 집적되어 중국 등 외국으로 수입된다. 이곳은 밤에 중국 배에 금지 품목의 상품을 실어 나르는 비공식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다. 신의주에 집적되는 탄은 주로 덕천탄광, 개천탄광, 구전탄광이 많다. 한편, 수문동에는 국경경비대가 있다.

[사진 4] 압록강을 따라 형성된 소규모 무역항들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다. 각종 당·군부·내각 산하 등 무역회사(지사)

조사 결과, 신의주에서는 각종 무역회사 및 외화벌이회사들이 무수히 입지해 있었다. 이는 모두 평양에 본사를 둔 지사 또는 분소들로 특히 1980년대 들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10~20배 이상 그 수는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무역회사는 주로 세관과 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압록강을 따라 입지해 있었다. 압록강을 따라 형성된 동은 먼저 관문동이 있다. 관문동은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입구라 하여 관문동이라고 지어졌다. 관문동의 옆을 강변 따라 지나면 역전동이며, 강을 따라 더 올라가면서 신포동, 신선동, 그 다음 민포동이 있다.

예를 들어 강서무역회사, 강성무역회사의 라이터임가공공장, 붉은별무역회사, 8군단 외화별 이회사, 은별무역회사는 압록강을 따라 존재했으며, 민포동 쪽으로는 동양무역회사, 은파산무역 회사가 입지해 있었다. 그 중 강성무역회사는 무력부 산하의 회사로 가장 크다.

주목할 점은 무역회사들이 대체로 압록강을 따라 입지해 있다는 것이다(사진 5 참조). 그 이유는 항을 따라 무역항이 입지해 있어 무역회사들이 이곳에 입지하면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포동과 관문동 사이에 강성무역회사의 부두가 있다. 강성무역항은 세관에서 약 300~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중국 단둥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 민포동

[사진 5] 압록강 및 항 주변에 건설된 신의주의 무역회사들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쪽으로 내려가면 호위사령부 소속의 현 동양무역회사(구: 청우산무역회사)의 무역항이 있다. 이곳을 ‘연못항’이라고 한다. 또한 강성무역항 옆에는 여객선이 다닌다. 이 배가 비단섬까지 들어간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많은 무역회사가 생기면서 민포동은 무역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기에 가장 선호하는 입지로 부각되었다. 그 이유는 강변에 입지해 있으면서 빈 공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공장입지

역 왼쪽으로 세관 바로 옆 철길을 따라 굴다리를 지나면 바로 친선동 일대에 신의주를 대표하는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고무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 신의주신발공장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장들 주변에는 경공업대학 및 농업대학이 입지해 있다. 역 오른쪽으로는 신의주화학제품공장, 신의주펄프공장, 신의주마이실린공장이 민포동과 신포동 사이에 입지해 있다. 이 중 펄프공장과 마이신공장은 일제 침략시기 건설되었으며, 신발과 화학섬유 공장은 김일성 시대에 건설되었다. 특히 화학섬유공장은 비단섬에서 나오는 갈대를 원료로 하여 종이를 생산한다.

[사진 6] 압록강을 따라 건설된 신의주의 주요 공장들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의주를 대표하는 공장들이 도시 중심부가 아니라 무역회사와 같이 대부분 압록강을 따라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 침략시기에 건설된 공장뿐 아니라 해방 후에 건설된 공장들 또한 압록강을 따라 건설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6 참조).

3. 도시 중심: 역전, 세관을 중심으로

신의주세관과 신의주역전은 매우 가깝다. 세관에서 나오면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보이며, 바로 옆이 바로 신의주역전과 광장이 있다. 따라서 신의주역전이 도시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역전 주변에 입지한 건물에는 밤에도 환히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역전 주변의 주택들의 전기 사정이 다른 구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함을 의미한다. 또한 역을 기점으로 주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오른쪽으로 보면 관문여관, 압록강여관, 은덕원, 보트장, 학생소년회관, 신의주백화점, 아동백화점 이외에도 각종 행정기관들이 있다. 신의주위수경무부도검찰서, 도당·시당시검찰서, 시인민위원회가 입지해 있다.

[사진 7] 역전, 세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도시들 - 역전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사진 8] 역전, 세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심 도시들 - 세관



출처: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4. 숙박업 · 여객의 운송 중심지: 무역과 물류운송의 중심지 민포동

역전에서 본부동 쪽으로 나가면 광장이 있으며, 여기서 강안역을 지나 평화동을 조금 못 가서 민포동과 신포동 사이에 여객사업소 및 버스정류장이 입지해 있다. 버스는 주로 신의주에서 평성 가는 버스이며, 하루에 3~4번 있다. 평양 가는 버스는 하루에 다섯 번 있다.

따라서 각 지역으로 나가는 모든 물류나 차량들이 이곳으로 집중된다. 민포동과 신포동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건설된 이유는 이곳으로 집중되는 차량들을 주차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백사동이나 남상동, 관문동, 역전동 등의 중심지에는 일단 공지가 없어 차량을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는 반면에 민포동과 신포동은 중심지와 약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세울 공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도 택배와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짐을 실은 차량은 함흥, 원산, 평양, 평성 등으로 나간다.

한편 버스정류장 주변이 물류의 중심이 되면서 이곳 주변으로 여관,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숙박소, 기름장사, 유흥업소가 생겨났다. 세관 주변에는 주로 외화를 사용하는 식당이 많다.

원래 민포동은 신의주시에서도 잘 살지 못하는 구역에 속했었는데, 무역회사가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물류 운송의 중심지로 변한 것이다(사진 10 참조). 특히 민포동에 무역회사들이 많이 들어선 이유는 강에 가까우면서도 무역회사를 세울만한 충분한 공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은 지금 신의주 물류 중심지가 되어 운수차량들도 버스로 이곳에서 먼저 출발한다.

[사진 9] 신의주의 버스 주자장 및 차사업소(2004. 4. 30 이미지)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04. 4. 30)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사진 10] 신의주의 버스 주자장 및 차사업소(2016 현재 이미지)



자료: Google Earth(<https://www.google.com/earth/>), 접속일: 2017. 3. 15) 위성자료에 입각하여 필자가 작성함.

III 결론: 도시의 공간적 특징과 발전전략

신의주시의 면적은 전국 28개의 시 중에서 26번째로 규모가 작은 도시이지만,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청진시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해방 전 신의주시는 하나의 소비·국제도시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무역·상업의 국제도시였다.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의 비율이 다른

시군들에 비하여 많은 것은 신의주시가 당시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만주와 직접 닿아 있는 출입문호였기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면 신의주특구가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로 계획·개발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바둑판 모양의 신의주 시가지 모양으로 견주어보면, 도시가 상당부분 계획·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1910년 경 단동과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철교를 건설하면서 신의주와 단동을 하나의 구역, 하나의 문호로 간주하여 건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에도 신의주시는 중국인거리와 일본인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인거리를 중심으로 화교들이 밀집해 있다.

이어서 신의주에는 평양 다음으로 무역회사가 많으며, 무역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무역항들이 많다. 이들의 무역항은 중국과 공식 무역뿐만 아니라 민간무역 및 밀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무역에 활용되고 있다.

평양과의 접근성 관점에서 보면, 신의주는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평양과 가까워 라선특구와는 달리 접근성에서 볼 때 상당히 유리하다. 예를 들어 신의주와 평양 간에는 국제열차가 다니고 있어 수송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에도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신의주-평양 간에는 고속도로는 아직 없으며, 1급도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단동-신의주 간 신압록강다리완공을 계기로 고속도로의 건설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는 북중 관문으로, 나아가 아시아 하이웨이의 관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동에서 신의주를 통과하면 평양과 개성까지 연결이 가능해 신의주는 북경과 평양을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이다. 또한 한일 간 해저터널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평양을 우선순위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구에 비해 평안북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안주에서 신의주까지는 아직 고속도로가 없지만 이 구간에 고속도로를 설치하면 개성-평양-안주를 연결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낙후한 요녕성의 경제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도 신의주에 대한 개발을 자국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고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을 연결하면 한국과의 연결도 고려할 수 있게 되며, 일본과의 연결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국도 이곳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물류가 증가할 것이며, 시베리아개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